제7회 졸업특집

The Newsletter From World Mission University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 Tel.(213)466-4629 • Fax (213)466-7840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월드미션대학교 학보 "월드미션헤럴드"
제8호 1998년 6월 7일 발행 ■발행인 : 임동선 ■편집인 : 김진광

1998. 1. 26 - 27
개강부흥회
주제 : Your Part in God's Plan

□ 총 장 훈 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임 동 선 목사
(총장)

먼저 여러분들이 수년동안 주경야독, 악전고투하며 신학교 소정의 과목을 필수하고 오늘의 졸업을 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불신자가 40억이 넘고 시대는 점점 어두워가고 마귀는 최후 발악하는 이때에 유능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는 여러 졸업생들에게 몇 가지 요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졸업(Commencement)이란 영어단어의 뜻은 "시작"이란 말이니, 이제부터 더욱 공부도 새롭게 시작하시오. 학해(學海)는 멀고도 멉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전도자의 실력만큼 전도의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크게 승리함은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넓고, 깊게 학생때 이상으로 공부하십시오.

둘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하고, 말씀만을 바로 전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 8:11)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언제든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탄생, 성장, 정신, 인격, 사업,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지옥, 천국을 똑바로 힘있게 전파하십시오. 복음만이 개인, 가정, 사회, 민족, 국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인내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 12: 3). 얼마나 끝까지 잘 참느냐에 따라서 성역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인내는 평화의 유지자요, 신앙의 보호자요, 사랑의 육성자요, 겸손의 스승이요, 교회부흥의 요소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큰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울음 다음에는 기쁨을 주십니다.

넷째, 사랑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사랑의 힘은 어떤 힘보다도 강대합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더, 나는 장군이다. 우리는 말을 타고 창과 칼로 한때 천하를 점령했다. 그러나 지금은 손바닥만한 땅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지고 오대양 육대주를 점령했다.

이 땅을 빼앗을 자는 없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사랑이 아니라 넓게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사랑만이 영원 불멸의 위대한 힘입니다.

다섯째, 모범의 사람이 되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행 20:35). 참된 교육의 효과는 백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모범이 산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서 겸손과 사랑과 봉사의 교훈을 무언 중 가르치셨습니다.

근일 항간에 도는 말로서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고, 자모는 많으나 현모는 적고, 아비는 많으나 아비다운 아비는 적고, 목자는 많으나 선한 목자는 적은 때라 합니다. 평범한 전도자는 말을 하고 좋은 전도자는 설명을 하고, 훌륭한 전도자는 본을 보이고, 위대한 전도자는 영감을 불어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 선지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성의껏 가르친 교훈과 훈련을 통해 튼튼한 지력과 덕력과 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확장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바울이 말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간증이 훗날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

이병설 목사 명예 신학 박사 학위 수여

이 병 설 목사

본 대학교 제7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이며 기독교 세계감리회 감독을 역임한 이병설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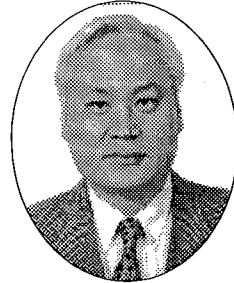
이병설 목사는 1926년 4월 13일,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동장리 775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개성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발탁되어 개성소재 장단군청에 근무하던 중 8.15 해방을 맞자, 공직을 정리하고 목회자의 사명을 안고 서울 감리교신학교 졸업 후, 다시 서울 신학교를 졸업 했으며 계속적인 연구의 열정으로 건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 업했다.

만 21세의 약관으로 개성지방 장단역교회 담임전도사를 시작으로 목회의 길에 서게 되었으며 강화지방 교동교회 담임으로 사역 중 195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허입되었고 1953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수원에 소재한 3.1중고등학교와 매향여자중고등학교 교목, 수원지방 강화교회 개척 담임, 서울 효창교회 담임목사로서 목양일념으로 사역하던 중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총무국 총무로서 국내외 선교를 위해 진력하였고, 본인 소유의 가옥을 교회에 바쳐 서울 대림교회를 개척하여 11년동안 담임목사로서 목양과 교회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회복지재단 천사원 여광원 이사, 기독교방송 재단이사 및 운영이사, 사회사업 태화사회관 재단이사, 한국의료선교협회 부회장, 학교법인 배화학원 이사 및 이사장, 미주 베델 성서연구원 회장 등을 역임해 오면서 투철한 기독정신에 입각한 민족복음화 및 세계복음화에 기여한 공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1965년,김활란 박사와 함께 전국복음화운동에 교단대표로 참여하여 심력을 기울이므로써 충실하게 임무를 감당하기도 했다. 군복음선교, 전국학원복음선교, 사회 복지관 지원, 고아원 돕기 등, 끊임없는 봉사사역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국외선교의 뜻을 품고 1982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성림감리교회를 개척, 담임하여 교회를 부흥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감리회」 감독으로 6년동안 재임하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카나다, 남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지에 산재해 있는 한인감리교회들을 규합하여 교단을 창설하므로써 국외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들의 구심점을 이루었으며, 웨슬리신학대학을 세워 초대 학장으로서 교단발전과 후진양성에 전심전력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국외선교연회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솔선 봉사하였다.

웨슬리안 복음주의의 건전한 신학노선을 지켜 목양에 전념하는 한편 선교사 양성 및 파송, 목회자 양성 및 파송에 자신의 생애를 기울여 왔으므로 교계의 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은퇴하기까지 만 49년동안 오로지 목양과 선교일선에서 쌓아올린 희생적 노고와 온화한 성품과 끈기 있는 집념의 실천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로서의 귀감이 됨은 물론, 자신의 저서인 "목양일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넓고 깊은 신학으로 평생을 일관했기 때문이다. *

안정삼 장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 수여

안 정 삼 장로

안정삼 장로, 그는 평남 안주에서 출생하여(1941. 7. 21) 1946년 해방 후 월남하여 서울에서 살았으나 6. 25 동란으로 부산까지 피난길에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ROTC 2기 육군병기장교 소위로 임관하여 교관으로 복무하였다.

제대 후 60년대 한국의 수출 주종품인 섬유제품 수출에 많은 신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했으며 1974년 브라질로 이민하여 이곳 쌍 파울로에서 90%의 한국교민이 종사하는 의류생산업계에 원단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 사람의 여성 중 한 사람은 한국인 교포들이 공급한 옷을 입을 정도로 의류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안 장로는 원단 생산에 선구자적으로 지금까지 24년을 경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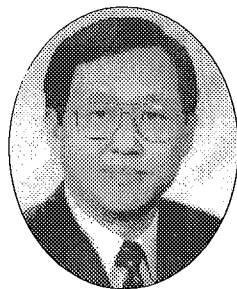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브라질 이민으로 처음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고, 쌍 파울로 동양선교교회를 창설하는 지축(8명중)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장로로 장립되어 시무 봉사하는 중에도 한국학교를 설립(8명중)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학교가 발전하여 정규학교가 되었다.

또한 쌍 파울로 동양선교교회에서는 브라질인들을 위한 정규대학교를 설립하고자 벌써 많은 대지를 구입하고 도서관을 만들었으며, 2001년에는 대학교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 장로는 이곳 쌍 파울로의 한국인 청년들을 위하여 장학회도 운영(2명 중)하고 있고, 쌍 파울로 동양선교교회 시무장로로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위에 많은 지역교회를 후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바른 교회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미래연구소를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 교 수 논 문

21세기를 향한 선교 방향의 재조절

박 광 철 목사
(부총장)

어느 세기보다는 20세기 말은 무섭도록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과학은 물론이고, 세계 사회 구조와 사상 그리고 세계 교회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산권이 붕괴되고, 이단을 위시한 각종 종교들이 발흥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소련 붕괴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00명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여,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 수행하던 정책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재고되고 또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도 직접 연결이 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선교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재고하고, 새로운 변화와 조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1. 금전 공급 중심의 선교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선교 초기에는 금전 지원과 물자 지원의 방법이 흔히 사용되었다. 그것이 현지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실마리나 "미끼"(?)가 되지만, 그런 방법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돈을 주는 물주(物主)가 구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지도력을 잡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외국 선교사 중에 물자를 지원하면서 인위적인 교인을 모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 소위 "밀가루 교인," "쌀 교인," "시멘트 교인," 심지어 "담배 교인"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경우를 봐도, 외국 선교 기관에서 후원금을 조건으로 교회 간판을 바꾸도록 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네비우스 방법" 등을 통해서 자립과 자치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경제 위기를 맞은 한국 선교는 이번 기회에 금전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 방식도 깊이 재고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를 누렸던 한때, 한국에서 나간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학교, 병원, 사회 사업 시설, 선교 기관 등을 경쟁적으로 많이 세웠다. 그것은 선교 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규모의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 활동은 선교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여, 선교사들이 쉬지 않고 모금 활동을 해야 하며, 또 시설물을 세우고 선교사가 떠난 후에는 현지 교회나 관련자들 사이에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흔하다. 그리고 건물이 세워져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없이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선교사들이 보다 영적인 사역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한다. 영혼의 구원과 양육과 훈련에 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역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자립하고 자생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가 클 수도 있다.

3. 선교사 발굴, 훈련, 그리고 파송과 관리에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또 누가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선교사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서 한인들을 위한 교역자로 나가는 것인가? "선교사"의 규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서, 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선교사 범주에 포

함된 이들 가운데 이러한 외국 거주 목회자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이나 교포 목회를 하는 이들 중에도, 본국에서는 선교사로 분류되어 매월 선교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타문화권에서 타민족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규정해야 한다.

우선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교적 소명을 받고, 선교를 위한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현재 목회나 전도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본국에서 전도 사역이나 목회에 실패하여 선교사로 나가고자 한다면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중생의 확신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고, 타문화와 타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선교지는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신뢰할 만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화려한 선교 보고를 기대하기 전에, 현지 언어에 숙달할 수 있는 기간과 적응 기간을 주어야 하고, 자녀 교육, 사역 내용과 기간, 사역 후의 관리 등 포괄적으로 선교 사역을 관리해야 한다.

이민 교회는 세계 선교에 효과적인 교량 역할이 가능하다. 본국의 단일 문화권의 생활과 달리, 앞뒷 집에 타민족이 살며, 또 매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기 때문에, 여기서 다문화의 "분위기"를 배울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선교사에 대하여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고, 타종교가 발흥하고 있기 때문에, 안수 받은 목사, 선교사의 입국이 제한된 국가가 거의 150여 나라가 된다.

그러나 그들도 의사나 컴퓨터 기술자, 외국어 교사, 농업과 과학자 등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텐트 메이커"(Tent Maker) 즉 "평신도 장막지기 선교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가운데에는 단기, 중기 또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서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고 있다.

4. 순수한 복음적인 선교를 강력하게 회복해야 한다.

처음에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봉사와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순수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나, 그와 관련된

구제 사업이 중심 활동이 되는 것은 구호 기관에 기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 사역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현지인들과의 레포 형성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배부른 돼지"(?)나 외국인에게 구걸(?)하는 듯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사역에 보다 집중적인 힘을 써야 한다.

한때 한국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가장 많은 구호품과 재정 지원을 받았던 이들 가운데, 일단 지원이 그치면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일들이 많았다.

5. 세계 협력적 선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도중에 사역을 중단한 선교사들의 이유를 보면, 선교사 부부 사이의 어려움, 선교사들 사이의 갈등 및 본국 교단과의 갈등이 대표적인 이유들이다.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들이 자기 교단과 교회의 이름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교단과 교회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한국 선교사가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다른 교단 소속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지에서 한국인끼리 갈등하게 하는 것은 선교 사역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노하우"(Know-How)가 축적된 외국 선교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준비를 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겸손히 배우며, 장기간에 걸쳐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 정책도 이런 면에서 깊이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신뢰를 받고 파송된 선교사에게 눈을 크게 뜬 감독자나 자금주가 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인 기도와 사역의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세기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급하게 변할 것이다. 빌리 그래함은 21세기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시화, 신속한 세속화, 타종교의 확산 및 선교지의 변화를 말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과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선교의 명령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종족에게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상실하지 말고, 주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이다. *

□ 교 수 논 문

신앙성숙도에 관한 연구

이 정 근 목사
<본교 대학원장>

■ 기독론적 기초

아담과 하와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지 못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말씀대로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는" 과정을 거치셨다. 혹은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40, 52),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학교에 다니시며 말씀을 배우셨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기술도 배우셨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인간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키도 자라고 건강도 자란다. 지혜도 자란다. 사랑도 자란다. 좀 전문적 용어로는 육신적 성장, 지적 성장, 그리고 정서적 성장, 사회적 성장을 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은 곧 "비교적 성숙한 자가 비교적 미성숙한 자에게 성숙하여 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모든 계획과 그 실천"이라는 정의에 동의하기 어렵지 않게 된다. 교육이란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말이다. 기독교교육도 신앙의 성숙(maturity of faith)을 그 목표로 한다.

신앙을 영적(Spirituality)라는 말로 대치시킬 수 있다면 인간은 체격, 성격, 인격과 함께 영적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성장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가령,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벧후 3:18)는 말씀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고전 13:11)는 말씀도 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고도 했고 특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엡 4:13, 14)라고 하였다.

■ 구원론적 기초

우리는 구원역정(ordo salutis)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 영화(glorification)의 삼단계로 말한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적 순서이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물론 구원의 역정은 이같이 단순한 것은 아니며 부르심(calling), 회개(repentance), 회심(conversion), 중생(regeneration), 속죄(atonement), 화해(reconciliation), 해방(liberation), 하나님의 형상회복(humanization) 등의 여러 복잡한 구원과정들이 포함된다.

특히 웨슬레이신학에서는 성화를 중심으로 구원과정을 보기 때문에 칭의나 중생은 초기성화가 되고 성령충만은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이 되어 "그리스도적 완전" (Christian perfection)에 도달하게 된다.

요한 웨슬레이는 그만큼 인간의 구원과정을 영격의 성숙과정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다(조종남, 웨슬레신학 연구 제1집, 1977).

웨슬레의 그리스도적 완전론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과연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있지만 이는 "완전지향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

이다.

어떻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는 말씀과 함께 믿음도 자라는 것, 은혜도 자라는 것, 그래서 구원도 성장하는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믿음의 성숙성, 은혜의 성숙성, 그리고 구원의 성숙성을 논해야만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엡 4:13) 곧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자"고 말할 때에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를 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고후 4:4)이시므로 그것이 곧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도달 가능한 목표이냐를 분석해야 된다는 말이다.

우리 인간은 그의 전능성과 무죄성에 도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이므로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면 언제나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이지 결단코 무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한계이다.

하지만 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의 이웃사랑, 그의 교육방법, 전도, 기도 등은 우리들도 닮아갈 수 있다. 게다가 전능성과 무죄성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목표 삼고 나아가야만 한다.

■ 성경론적 기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적성숙에 관한 가르침들이 있다. 어떤 것은 명백히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숨어 있기는 하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난 사건은 잘 알려진 기적이다(민 17:8).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이 처음에는 아무 생명도 없는 지팡이 같은 죄인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움이 돋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생명이 시작된다. 다음에는 순신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꽃신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신자가 되어 성숙한 영격에 이르게 된다. 그것도 "지킨다"는 뜻을 가진 살구열매이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보게 된다.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는 또 하나의 천로역정(Christian's progress)을 뜻한다. 이방인들은 성막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개종한 이방인들은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여인들은 지성소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자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제사장들은 더 가까이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역정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법궤 특히 은혜의 보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지향의 길"임을 보여준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등편에서 나오는 물의 깊이만 해도 그렇다(겔 47:3-5).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창일하게 된다. 은혜의 강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정도를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천국비유도 신앙성숙의 길을 보여 준다(마 13장).

처음에는 복음의 씨가 마음 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는 마귀가 의심의 씨를 뿌리게 되며, 복음의 씨가 겨자나무처럼 외적으로 성장하고, 또 누룩처럼 내적으로 확신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감추인 진주나 보화처럼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물 비유에서처럼 심판에서 승리하게 된다. 결국 연단과 심판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가장 성숙도가 높은 것임을 보여 준다.

■ 인간론적 기초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나무만 보는 믿음보다는 숲을 보는 믿음이 성숙한 것이며, 과거지향적 믿음보다는 미래지향적 믿음이 더욱 성숙한 것임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구원받는 믿음보다는 남을 구원하는 믿음이 더 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마음으로만 믿는 것보다는 실천이 따르는 믿음이 더 성숙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주장했다(약 2:17).

최근에 나온 여러 심리학적, 인간학적 연구들은 신앙의 성숙이 인간전체의 성숙과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있다. 스위스 심리학자 삐아재(Jean Piaget)가 어린이들의 지성이 어떤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밝혀낸 이래(아동심리학, 김재은 역, 1972), 미국의 심리학자 콜버그(Laurence Kohlberg)는 인간의 도덕적 발달단계의 신비를 발견해 내게 되었다(Munsey, de. Moral Development, Moral Education, and Kohlberg, 1980) 이같은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에모리대학교의 파울러(James W. Fowler)는 믿음의 발달단계(Stages of Faith, 1981)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믿음은 여섯 가지 단계로 발달되는 데 그 마지막 단계 곧 가장 성숙한 단계는 보편화되는 믿음(universalizing faith)라고 밝혔다. 이같은 믿음은 모든 문화권에도 통하는 것이요 자기 개인의 철저한 인생관으로 승화된 믿음이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는 이슬람교의 호메니히, 힌두교의 간디, 그리고 기독교의 함마숄드, 마틴 루터 킹, 본훼퍼, 테레사 수녀, 토마스 벌톤 등을 들고 있다(201).

파울러가 말하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는 심리학적으로 관찰된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 전체의 성숙성이 신앙성숙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은 그의 공로였다. 이보다 앞서 인간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연구한 업적 중 중요한 것은 올포트(Gordon W. Allport)라는 미국심리학자였다(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1937).

그는 인간의 성숙성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었다.

1)사기 확장,
2)이웃과의 사랑관계 증진,
3)정서적 안정,
4)자기자신의 정확한 이해,
5)자기 객관화,
6)통일된 인생관 형성
(chap. 12, The Mature Personality).

이 소논문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여유가 없거니와 이같은 인간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사랑은 신앙의 완성인데 사랑의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성숙한 신앙인인 것은 "자기 확장"이나 "이웃과의 사랑관계 증진"에서 발견하게 된다. 자기사랑에서 가족사랑으로, 가족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에서 무관계한 사람 사랑으로, 무관계한 사람 사랑에서 원수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 하겠다. 기독교교육학자들은 성숙한 믿음의 증거(marks of mature faith)를 발견하려는데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이것이 곧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되고 기독교 사역 전반의 목표도 되기 때문이다. 신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화 되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 혹은 잣대라도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1)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2)믿음의 열매 체험,
3)신앙과 생활의 일치,
4)영적 성장의 추구,
5)공동체 안에서 믿음양육,
6)생명에 대한 적극적 확신,
7)사회변화의 추구,
8)행동하고 섬기는 믿음을 들기도 했다.

(Roehlkepartain, The Teaching Church, 1993).

■ 신앙의 성숙도 판별기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이론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회목회 현장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작성할 수 있을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속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처럼 철저히 수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고 무모한 일이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처럼 검목표(check list)와 같은 평가도구를 만드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의 일곱 가지 항목은 신앙의 성숙도를 판별하는 지침으로 삼을만 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구원의 확신(assurance of salvation)이 있는 신자라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구원의 확신은 외적 증거, 내적 증거, 공동 증거 등이 있지만 우선 자신의 구원을 성경말씀이나 교리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나 신학을 많이 공부할수록 구원의 확신도 자라가게 된다

2. 믿음과 생활이 일치된 신자 (integrating faith and life)라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보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더 성숙하다고 앞서 지적했다. 믿음이 없는 행함보다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라야 한다. 특히 현대의 신자들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이것은 세계적인 형상이기도 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윤리가 없는 신앙은 미신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 곧 신전의식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야 성숙한 신자이다.

3. 십자가를 지고가는 신자(Sacrificing Christian)라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미 제임스 파울러도 순교하는 신앙을 가장 성숙한 단계로 본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믿음, 사랑으로 말한다면 아가페의 사랑 곧 반대급부가 없는 사랑을 가진 신앙이라야 한다. 유다처럼 남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신은 돈을 챙기는 자이거나 베드로처럼 결정적 위기에서 도피하는 신앙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다. 목숨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섬기는 자 곧 머슴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평생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4. 남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적 신자(leading Christian)라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기독교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지도자가 되게 한다. 전도하는 일부터 봉사하는 일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성숙한 신앙인이고 또 영향력의 정도가 강력할수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런 지도자는 책임감이 강하며 선도력, 창의력, 성취력, 동원력, 설득력 등 인간적 성숙성이 동시적으로 개발되게 된다. 믿음의 완성품인 사랑도 사랑의 소비자가 되는 것보다는 사랑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증거인 것이다.

5. 믿음을 스스로 키우는 자립적 신자(autonomous Christian)라야 성숙한 신앙인으로 평가된다. 은혜의 도구인 성경연구, 기도, 묵상, 성찬참가 등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화된 인간(self-motivated person)이 되어 자기 신앙을 키우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인간이 성숙하고 학문에 있어서도 스승 없이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자가 성숙한 학자인 것이다.

6 균형잡힌 신자(Balanced Christian)라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사람의 몸도 균형있게 자라야 하고 속사람도 지정의(知情意)가 균형있게 자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 믿음과 생활의 균형, 육신과 영혼의 균형,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균형, 현재적 신앙과 미래적 신앙이 균형....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전 14:40).

7. 사명을 가진 신자(committed Christian)라야 성숙한 신앙인이다. 자기가 사는 평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는 미숙한 인간이다. 그러나 자신의 평생의 사명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부분일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같은 분이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라고 선언한 것이 그 적절한 사례가 된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전 10:31).

■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같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처럼"이라는 말로 돌아온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어떤 면이 "장성하신 모습"일까? 특히 교육적으로 도달 가능한 면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처럼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믿음을 키우시고, 예수님처럼 균형 잡히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위에 오신 사명이 명확하신 것을 뜻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있는 것으로 대치함)

〈필자소개〉

- D. Min., Ph. D. work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역임
- 현재 유니온성결교회 담임목사
-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논문지도교수

□권면의말씀

희생적 사랑으로 수고하며

김 영 배 목사
(교무처장)

올해는 특별히 졸업생이 많이 배출된 해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이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 깊이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권면의 글을 쓰라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또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 취향과 환경과 꿈, 또 서로 다른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다양함 속에서 저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를 거쳐 나간 신학도들에게서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공통점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공통분모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을 하나의 덩어리(Cluster)로 묶이는 곤란합니다. 모두가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돌아가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여러가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가지로 귀결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그 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월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의 삶의 형태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분모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한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적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는 아픔과 고통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자처할지라도 그 사랑 속에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건 세상적 사랑, 타락한 사랑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희생적 사랑으로 수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랑 때문에 아픔과 손해도 감6.25 전쟁포로의 발생과 현황 (1950. 6.25～1953. 7.27)수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본인 크리스쳔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야나이하라 다다오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잃어서 안타까와 하는 것은 후회이지만, 잃어서 기뻐하는 것은 희생이다. 참 인생은 희생이며 희생은 손실이지만, 그 손실에 의해 인생의 의미와 영광이 드러난다.

희생은 인간이 자기가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버리는 일인데, 무엇을 가장 아끼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므로 타인이 쉽사리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타인이 보았을 때 큰 희생으로 생각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별로 희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별 희생이 아닌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최대의 희생일 수도 있다.

자신의 프라이드나 가문의 체통을 회복키 위해 할복한 사

무라이의 죽음 — 어마어마한 큰 희생인 듯 싶지만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으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 한 알의 밀 알이 되어 썩어져 흙이 되어버린 한 전도자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심히 보잘 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무한한 상급을 약속 받는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에 매달려 피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에 버금가는 위대한 삶을 산, 희생적 사랑으로 수고하다 부르심을 받은,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고 반갚6.25 전쟁포로의 발생과 현황 (1950. 6.25～1953. 7.27) 게 맞아 주실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진정한 자선이 있듯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곳에 진정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가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희생을 치루었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목적이 높을수록 희생의 가치는 크고, 목적이 낮을수록 희생의 가치는 적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남 몰래 참는 손실보다 가치 있는 희생도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희생을 겪고 손실을 보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리스도는 아시며 하나님은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십니다.

졸업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집념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 동기와 과정 속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공적을 시험하는 불길(cf. 고전 3:12-15)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처럼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과 희생으로 수고하며 세운 집들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공유될 때에, 그래서 그 사상이 하나의 공통분모가 되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우시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역을 각기 다른 분자로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월드미션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수년 전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여 찾아 왔던 신학의 길에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 키우고 성장시키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학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더욱 그 터가 굳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늘 사랑하십시오. 기뻐도, 슬퍼도, 좋아도, 미워도 늘 사랑하십시오 — 형제 사랑은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 복음을 전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상담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징계하고 용서할 때에도,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하십시오.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아픔과 뼈를 깎는듯한 고통이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오해와 모함과 억울함도 감수해야 하고 많은 눈물과 수고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이외의 다른 길은, 이런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 아니요, 다만 자기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영혼은 '사랑의 힘' 이외에는 그 영혼을 잡아 끄는데에 다른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의 사역과 삶 전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World Mission University
1998년도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학생회 조직

직책	이름
회장	윤성환
부회장	조항목, 김복남
총무	이상혁
서기	전춘영
회계	강정학
감사	김인수, 정영식

부서	직책	이름
예배부	부장	조성운
	차장	김승원
선교부	부장	김대환
	차장	주문경
음악부	부장	박정숙
	차장	이해련
학술부		유정진
친교부	부장	한정분
	차장	정호선
체육부	부장	권재옥
	차장	황성은

역대 학생회장

대	이름	기간
초대	이법웅	1989~1990
2대	조원하	1990~1991
3대	지금섭	1991~1992
4대	윤경호	1992~1993
5대	이재현	1993~1994
6대	김재선	1994~1995
7대	이주형	1995~1996
8대	이청우	1996~1997
9대	이인검	1997~1998
10대	윤성환	1998~현재

□ 교 수 논 문

The Jubilee Mission of Jesus in Luke;
Reversals of Rich and P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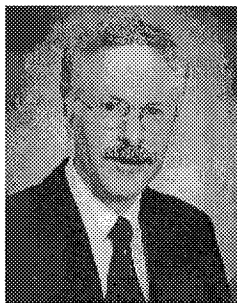
By Paul Hertig,
Professor of Missiology

There may be no better way to get to the heart of Jesus' mission than to study Jesus' inaugural address in his hometown Nazareth synagogue. There Jesus proclaimed that he was the anointed one of God and introduced a jubilee era which is programatic in Luke's Gospel for his holistic mission of grace. But for some listeners with high messianic expectations, it was only half the mission of the Messiah; they also awaited the omitted day of vengeance. Jesus concludes his Isaiah 61:1-2 citation climactically and ubruptly with the word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Luke 4:19), ommitting the remainder of the Isaiah quotation,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Jesus Proclaimed the Year of Jubilee

The phrase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re rooted in the jubilee language of Leviticus 25:10,41. Furthermore, the word release (*aphesis*) is the translation in the Septuagint of the Hebrew word *d^eror* found in Leviticus 25:10. This term meaning "freedom" or "liberty" is a "technical expression referring to the release of Hebrew slaves and of property every 50 years in the year of Jubilee" (Harris, Archer, and Waltke, Vol. 1 1980:455).

During the year of Jubilee, those forced into slavery due to poverty were released (v. 39-41); leased land due to poverty was returned to its original owners (v. 10,13); debts were erased since it was the fiftieth year following seven times seven sabbatical years (Deut. 15:1-6); and the land was given a rest from planting and harvesting (Lev. 25:2-7,11-12). Jubilee had deep spiritual foundations. The Israelites were commanded to deliver people from bondage and slavery because "they are my servants, whom I brought out of the land of Egypt; they shall not be sold as slaves are sold" (25:42;cf. 25:38,55).

Jubilee, which means a "ram's horn" and was to be proclaimed every 50 years can be

summarized as a reversal of rich and poor, a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a flattening of pyramids. Kraybill describes jubilee as "institutionalized grace" which implements "special provisions to defend and protect the helpless" (Kraybill 1990:98). Jubilee is a profound spiritual and social event:

> In true biblical fashion, the Jubilee integrates spiritual and social dimensions. It weaves religion and economics into one fabric. Pulling the two apart prostitutes the biblical truth.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turnover constitutes flagrant disobedience (Kraybill 1990:99).

Considering that Jubilee served to restrain the greed and ambition of the powerful and elite, it is no surprise that there is a lack of biblical evidence for its practice[1] even though it is commanded and anticipated (Lev. 25:10, Num. 36:4) and theologically based (Lev. 25:42,55).

The Poor of Jesus' Jubilee Mission

A key phrase in Jesus' Jubilee proclamation is "good news to the poor." In and around the time of Jesus, certain Jewish sects, particularly the Qumran community, felt that the "poor" referred to its particular community (Meier 1994:385). But Luke rejects such exclusivism and works with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term, giving it an *"inclusive, universalistic"* meaning (Crockett 1973 1:99).

Jesus likely grew up in the low social class, indicated by his mother's song in 1:48,53 and his parents' offering in 2:24 (cf. Lev. 12:8). He deliberately identified with the lifestyles of the poor and stated that he "had nowhere to lay his head." His first disciples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and were sent out dependent on the hospitality of others (5:11;9:3-5). J.P. Meier points out that Jesus belonged to the poor in the sense that he had to work hard for a living (1991:281).[2] In fact, about 90 percent of the Jews in Galilee could have been classified as "poor" (Meier 1994:1048).

The word for poor *(ptochoi)* in Luke has both social and spiritual meaning.[3] The social aspects of the word "poor" are highlighted by Luke, particularly in his Beatitudes where the poor *(ptochoi)* are contrasted with the rich. Guelich points out that Luke stress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quite possibly because they correspond in a general way to the socioeconomic realities of the church's situation" (1982:70). Guelich feels that in general the poor and powerless have accepted the message of the kingdom while the rich and powerful have rejected the message. However, poverty is neither an ideal nor prerequisite of the gospel in Luke, but likely a reflection of the reality of the church (1982:70).

We must guard against interpreting Luke's first beatitude as "blessed is poverty." On the contrary, the poor are blessed because they are acknowledged by God and can anticipate that God will correct their situation. This is laid out clearly when the poor, hungry, weeping and persecuted are promised the rewards and joys of the kingdom of God while the rich, well fed, laughing and well respected will become the hungry, the weeping, the miserable (6:20-26).

Jubilee Reversals

In this sense, Luke portrays a reversal between the oppressed and oppressors. Jesus initiated the reversal motif when he announced a new jubilary age in the Nazareth synagogue. The motif calls for inclusivity; even the poor are called to love their enemies. Immediately following Luke's beatitudes, the poor, in contrast to their oppressors, are commanded to love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6:27,28). Therefore, the jubilee proclamations call for immediate application in anticipation of a full reversal in the future of God's kingdom: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italics mine).

Luke's Beatitudes find their point of reference in the first beatitude, the "poor" and this account is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metaphor of jubilee in Isaiah 61:1f" which refers to an anticipated deliverance of external difficulties for the oppressed, i.e. an "eschatological reversal of fortunes" (Sloan 1977:190). This escatological reversal put into effect by Jesus calls for the actual practice of jubilee which brings about internal and

external deliverances (6:27-49).

Jerome Neyrey feels that "reversal" may be too strong of a word to describe this dominant theme of Luke-Acts (1991:297). He prefers the terms of "inclusivity and impartiality" which give the intended meaning of the reversal theme:

> Luke did not say that Jesus condemned those whose lives were happy, who enjoyed honor in society, who were learned, or who had status. He did not banish them from the map of God's covenant members. Rather he rearranged the lines of the map so that those formerly excluded from the map were included and those on the outer circles of the map were now closer to the center (Neyrey 1991:298).

Jesus restructured the traditional value systems according to God's mercy, which for first-century Jews, turned their world upside-down and their worldview inside-out.

Mary's Song

Mary's Song contains the reversal motif in the past tense and begins with a strikingly similar tone to Luke's first beatitude and Jesus' first words in the Nazareth synagogue. Mary magnifies the Lord because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Luke 1:48). Her term "humble state" (tapeinosin) parallels ptochoi and has a broad root meaning of lowliness insignificance, weakness, reduction, and poorness (Kittel and Friedrich 1985:1152-1153). The connection between Mary's self-description and Jesus' good news to the poor is undeniable. Mary's Magnificat is filled with jubilee reversals in the past tense (1:51-53), indicating that the coming of Jesus has already begun this reversal. Mary begins the reversal motif at the inner **spiritual** level, declaring God's mercy upon those who fear him and the scattering of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hearts. She then moves to a **political** reversal in which rulers are brought down and the humble exalted. Finally, she speaks of a **socioeconomic** reversal in which the hungry are filled and the rich are sent away empty. We are reminded of the holistic aspects of jubilee through Mary's Song. People under a variety of oppression are exalted while their oppressors are humbled. The spirituality of Mary's Song is described in the phrase,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e fear him."

The Inclusive and Great Banquet

While eating in the house of a prominent Pharisee, Jesus tells the host to invite to a banquet those who cannot afford to repay the invitation, specifically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Jesus is again utilizing jubilee language paralleling Luke 4:18 and 7:22. Through this story, Jesus challenges the exclusivity of the rich and prepares them for a reversal of fortunes, urging them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reversal by inviting the very people who are normally excluded. Then Jesus gives a parable of a great banquet in which those who are invited make excuses not to come. This angers the homeowner who tells his servant to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14:21). Once the servant accomplishes this task, then the master sends him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to invite additional people in order to fill the house (14:23). The parable concludes with the declaration that not one of those who were invited will be allowed to taste the banquet (14:24).

This passage prepares the way for an eschatalogical reversal between those who exclude and those who are excluded. The inclusiveness of the banquet in which people are invited from afar implies the inclusion of the Gentiles in the mission of God.[4] This passage also indicates that the jubilee era is already/not yet, both present and eschatological. The future kingdom of God has broken into the present, making the eschatological jubilee an ever present challenge to the status quo and mandatory in the ongoing practice of the mission of Jesus.

The banquet story and parable also reveal that Jesus did not reject the rich and elite; although they readily rejected him. Jesus gives the Pharisee, in whose home he dines, an opportunity to show repentance if he would invite the poor and rejected outcasts to the banquet. In fact, he pronounces an eternal blessing on such a decision (14:14) as he did to Zachaeus (19:9).

Luke's jubilee theme of rich and poor is a promise to the poor and a challenge to the rich. The poor are promised the kingdom; the rich are challenged to share in that kingdom by virtue of their treatment of the poor. No longer may we live by the prevailing and disturbing attitude that the poor have too much and should have less while the rich have too little and should have more.

Conclusion

In conclusion, due to the negligence of jubilee in Jewish history stemming from a short-sighted view of the mission of God, Jesus began his mission on earth by announcing a new era of jubilee mission practice. When Jesus was asked by messengers of John the Baptist whether he was the Messiah, he answered in present tense jubilee language. Jesus thus announced a jubilee mission and proclaimed that he had fulfilled that mission through his holistic ministry on earth (7:22;4:18-19). Luke will not allow us to interpret this jubilee language in terms of flowery metaphors or spiritual allegories. He prefaces Jesus' response to John the Baptist with the crucial words, "At that very time Jesus cured many who had diseases, sicknesses, and evil spirits, and gave sight to many who were blind" (7:21). In other words, Jesus literally fulfilled the jubilee which he proclaimed. His radical mission was the very mission of God found in the Old Testament proclamation of Jubilee.

The present Jubilee era we live in calls for Christians everywhere to embrace the holistic mission of Jesus by engaging in the real world through Jesus' spiritually and socially inclusive mission of mercy and love.

---

[1]Harris, Archer, and Waltke feel that there is one reference to the practice of Jubilee in Israelite history when Zedekiah made a covenant with the people in Jerusalem who were under Babylonian oppression and "proclaimed liberty" for the freedom of slaves (Jer. 34:8). They obeyed and slaves were set free; however, when the Babylonian siege ended temporarily, they again took back their slaves. Jeremiah then declares God's judgment upon the people for their hypocricsy in 34:15-17 (p. 198 in Waltke). Although it was a valiant attempt, this hardly seems to be a valid example of the practice of Jubilee.

[2]Meier surmises that on a rough scale, "Jesus the woodworker in Nazareth would have ranked somewhere at the lower end of the vague middle, perhaps equivalent--if we may use a hazy analogy--to a blue-collar worker in lower-middle-class America. He was indeed in one sense poor, and a comfortable, middle-class urban American would find living conditions in ancient Nazareth appalling. But Jesus was probably no poorer or less respectable than almost anyone else in Nazareth, or for that matter in most of Galilee" (1991:282).

[3]In classical Greek, *ptochoi* is a socioeconic term (Guelich1982:68 and Meier1994:384). This nuance is found in Luke 16:20 where *ptochos* means "beggar."

[4]This inclusive messianic banquet may well be rooted in Isaiah 25:6,7.

□ 학 생 논 단

"21세기에 소문난 졸업장 "

윤 성 환 학생회장 (M. Div.과정)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나 모두가 이왕이면 일류학교의 졸업장을 받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느 누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수는 없는 것이다. 오로지 나(학생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물론 튼튼한 재단이 있으면 학교의 건물이나 각종 여러 시설을 갖출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 학교가 일류학교는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투자된 건물이나 시설이 훌륭하다해서 그 학교가 일류학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는 중에 대학교 수만도 3,688개이며 신학교가 623개 속에 우리 WMU가 9살이 되어 50년 혹은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들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욥 8:7) 하신 말씀과 같이 아홉 살밖에 안된 WMU가 앞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들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학교요 세상적으로도 첫 번째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신학교로 우리 WMU 학생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만을 해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언제나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다. 기도의 응답에는 반듯이 우리에게 조건부의 약속이 따르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2)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만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데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척척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데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해야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너희는 무엇보다 모임에 힘쓰라" 고 하신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교훈이 아니고 '명령'임을 알아야하겠다. 교훈과 명령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훈은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아니했다고 해서 큰 낭패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명령인 것이다. 군인이 상사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 부하는 이미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것이 명령계통이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명령하신 다음과 같은 집회에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만 하겠다.

* 개강 부흥회(매학기초)
* 신입생 환영회
* 학술 세미나 연구 모임
* 기도 모임
* 개교기념 예배
* 학생 헌신예배
* 졸업축하예배
* 연합체육대회(각 신학대학 공동주최)
* 학생회 애경사
* 경건의 시간(매주 월요일)

주님께서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드릴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사회에서의 회의도 성원이 되어야 회의를 하듯이 세상적으로는 모임을 통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모든 모임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요 밑알인 것이다.

둘째로, 학생과 학생끼리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에 사랑의 한 띠로 하나로 묶어졌을 때 우리 WMU의 졸업장은 세상에서 소문난 졸업장이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전 13: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동산에서 주경야독하는 우리 학우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섬김으로 공부할 때, 천국의 체험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선지동산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 때, 우리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소문난 학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한 소명을 가지신 학우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빛나는 졸업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WMU의 졸업생들만은 이 세상 어느 사역현장에서든지 뜨겁게 환영하며 기다리는 21세기의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한 학생 한 학생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님의 명령인 모임에 힘쓰고 앞 못 보는 소경도 우리의 사랑만은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21세기에 소문난 졸업장을 성취키 위하여 우리 다같이 달려갑시다!! *

부모의 기도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해 주소서.
자녀들을 이해하며, 그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질문에 친절한 정신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저의 이기심에 가득찬 교육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무산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교육을
가르키지 않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제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예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실수를 비웃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이 부모의 잘못을 당돌하게 지적하였을지라도,
겸손하게 저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수치와 부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옵시며,
날마다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나,

노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처벌치 않게 하옵시고,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동정하고 교훈하는

심령으로 매를 들 수 있게 하옵소서.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
는
가르침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정직이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제게서 비굴함이나 치졸함을 제거해 주옵시고,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 사랑에 원칙이 항상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를 교육시켜 주옵소서.
제게 용기와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자녀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안돼"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가정에서 항상 친절하며, 공정하고,
의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 주옵시며,
저희 부부의 성품과 생활이 자녀들 앞에
가장 매력적이고 고귀한 모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밀레니움을 위한 우리의 선교과제

이 인 검 학우 (M. Div.과정)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막 13:10)

영광스런 지상의 왕국과 최종적 승리를 의미하는 Millennium이라는 말을 요즘 자주 듣게되는데 1년반만 있으면 현재의 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간절하나, 주님께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남아메리카와 중국에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영혼 구원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불길을 보면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의 울타리를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3주간의 선교여행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선교여행의 목적은 이론을 위한 지식, 습득보다는, 실습을 통하여 안목을 넓히고 사역의 현장에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역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며 과거 선교의 상황과 결과를 통하여 현재의 선교를 이해하며 앞으로의 사역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의 3개 지역과 보츠와나 공화국(Republic of Botzwana)의 2개 지역을 돌아 봤으며 유럽에서는 영국의 런던, 이태리의 밀라노와 로마, 끝으로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세계는 하나, 즉 지구촌의 뜻을 실감했으며, 지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사실상 국경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수단도 좋아져서 아프리카의 구석진 곳도 단 시일 내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소련의 붕괴 후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경제가 국가번영의 제일의 요소가 되었고, 이런 연유로 국경이 없는 경제 세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우선 자국의 이익만 되면 눈을 감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과거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자유 민주주의로 전향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잠비아의 경우 1991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직접 TV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공포 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선교하기 좋은 이때를 교회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잡아야 하며, 우리는 좋은 추수기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하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의 비통한 절규를 듣지 않도록 아직 늦지 않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야겠습니다.

남아프리카와 보츠와나의 선교사역을 돌아보면서 다행한 것은 오랜 식민지 정책(Apartheid)으로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복음화가 막혔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식민지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아프리카의 복 음화를 위하여 선교의 대열에 앞장을 서서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월드미션센터 주관으로 수도 프레토리아에서 GCOWE '97(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97)대회를 개최했으며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양성 속에서 일치에 관하여 서로의 정보 교환과 동역자적 입장에서 협력관계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하고 저력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 아프리카를 위하여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 복음화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되면 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한인들은 숫자적으로는 미약하지만 경제력이 있어서 한인 사역자들을 위한 선교 센터를 건립하면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와 보츠와나의 한인 선교사역을 돌아 볼 때 이러한 선교의 좋은 기회를 맞아 선교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급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 사역자나 단체가 선교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셈입니다. 지난날의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역으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와 제국주의적 선교를 과감히 탈피하고 선교 사역자들과의 연합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고 각 분야 별로 협동하여 선교의 전반적인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의 무깐요 신학교를 중심으로한 필립 베이스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경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신학교를 세우고 흑인 지도자를 양성해 왔으며 구제를 위하여는 정부의 구제기관과 연합하여 지역사회 구제에 힘쓰며 사회각종 사업을 위하여는 전문 자원봉사들을 단기 선교로 초청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츠와나의 한인 선교사역은 그 동안 많은 선교사와 선교비를 투자했지만 효율적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선교 정책이 따르지 못했으며, 또한 선교사들이 경쟁적으로 선교하여 피 선교자들에게 혼란을 빚고 선교의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저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피선교 단체를 놓고 서로의 법정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한인 선교가 물량적, 지배적 선교의 결과라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적절한 평가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사역하다가 탈진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사역이 후임자에게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이제까지 쌓아 올린 기반도 일시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선교지에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선교사역자들과 연합하거나 선교 단체에 동역자적 입장으로 협력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가 전산처리되며 전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통하고 정보 매체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그전처럼 고립된 선교지가 많지 않은 현세에 있어서 선교 정책도 따라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에 정확한정보를 통하여 선교 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세계적 선교기관과 교류하여 선교 정책을 수립하며 계속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선교를 한다.

둘째: 선교지 현장에서 다른 사역자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동역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세우며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셋째: 선교 후원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후원기관도 후원금만 보내는 형식적인 선교로부터, 선교지에서의 사역자와 일체가 되어 선교의 부담을 함께 나누 며 생동감 넘치는 선교의 열정을 갖고 적극 후원하여야 한다.

넷째: 한 선교지를 놓고 둘 혹은 그 이상의 선교사들이나 기관들이 서로의 경쟁을 피하고 중복되는 선교 정책을 금하여 피 선교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선교 사역 전반적인 것을 전문 분야로 나누어 가능한 한 팀 사역을 하여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적극 협력 사역을 권장한다.

여섯째: 피 선교지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필수 이며 선교사의 훈련 과정에 문화 인류학, 성서 배경학을 통한 타문화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며,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대상자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일곱째: 정보시대에 맞추어 선교사의 언어 훈련과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서 선교 정보 센터와 자료를 교환하며 통계학적인 상황 수집, 분석,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사회로 고도기술 사회이며 정보의 세계화를 위하여 장거리 통신의 Global Network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구상의 모든 개인에게 시차 없는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아프리카 체류중 개인용 핸드폰을 사용하여 수시로 연락하며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아프리카 내의 이동 통신 덕택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둔 Joshua Project 2000에서는 모든 정보 매체를 통하여 2000년까지 지구 전체의 95%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프로젝트

를 실행 중에 있으며, 지난 1996년에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이 지난 47년동안 1억8천만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통하여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복음을 시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해지므로 선교지에서의 이들을 양육할 일꾼들은 더 많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의 수확기인 이때를 잘 준비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던 상황을 생각하며 안일한 종래의 선교(특히 후원금만 보내는)에서 탈피하여, 직접 참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선교를 위해 서로의 격차를 줄이고, 교파적, 개인적 차이를 용납하며 극복하므로 서로 연합하여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분명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세계 교회에 대하여 책임질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주 이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지원하여 학업 중에 있으며 또한 선교사로 이미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서 훈련과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가장 아쉬웠던 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한인 선교기관을 볼 수 없었고 선교지의 선교 상황을 파악하며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지에서도 한인 사역자들은 그 지역의 전체 상황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선교 단체들과의 정보교류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감당하여야 할 사역 외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미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선교 종합 센타"가 세워져야 하며, 이곳 LA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곳에 21세기를 이끌어갈 선교 종합 센타를 세워서 지금부터 선교 정보를 수집하고 선교 전략과 방법을 연수하며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맺고 정보 교환을 하며 발전시켜나가면 한인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 위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

마음을 다스리는 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있는 이를 받들며
지혜로운 이를 따르고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 학 생 수 필

"요나예요, 요나"

God's Images by
James Dickey & Marvin Hayes

이 상 혁 (M. Div.과정)

어느 날 누군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내게 물었다. "글쎄요!?"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몇십 년이나 다니고도 좋아하는 사람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황당함을 느낀 적이 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주요 인물은 얼른 생각이 나는 법이니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로 하고 탐색전에 나섰다. 생각나는 사람들을 아담부터 시작해 한 사람씩 적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과연 이 사람일까?" 하며 내게 물어보고 또 써 내려가곤 했지만 모두들 존경은 할 수는 있지만 좋아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선뜻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찾는데도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남들은 다 갖는 그런 사람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 별난 사람 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말의 불안이 싹트면서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써 내려가던 펜을 멈추었다. 애초 대답을 하지도 못했는데 찾는다는 것조차 무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위하며 우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부터 정의를 내려보기로 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나도 그들과 같이 큰 신앙,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은 늘 간절하지만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그들은 원래 보통 사람인 나와는 근본적으로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버티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한계선을 미리 긋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내 입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배어 있지만 시대, 민족,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거리감이 그들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위대한 인물들도 나와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 화를 낸 모세, 성질 급한 베드로--} 그러나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는 다르게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 실수한 순간의 바로 그 상황 때문에 그 인물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맞추려고 애쓰는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결국 좋아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나와는 다르다는 거리감이 적고 나와 비슷한 구석이 많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신앙인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맘을 정하고 성경책을 한 권씩 순서대로 보아가며 그런 사람을 찾기로 나섰다. 그런데 32번째 책에 이르러 드디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내게는 친숙한 인물, 또한 그의 이야기는 동화로서 우리 머리 속에 각인 되어 있는 바로 "요나"였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토해냄을 받은 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싫어 투정하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요나!} 이것이 요나 자신이 그린 요나서의 전부이며 그 곳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아니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꼴임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살고 있다.

요나의 하나님은 백성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데 선택된 민족을 핍박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 수십년을 다녔고 여러 가지로 충성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내 심적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이런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때는 저런 모습으로, 요런 때는 요런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땐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를 늘 범했다.

곧, 하나님을 내 마음속 생각의 변화대로 변화무쌍한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요나였고 그리고 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한술 더 떠서 찾기 힘들도록 배 밑창까지 내려가 잠을 잤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거역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듯이 하기 싫다는 감정을 도망감으로 충분히 아니 배 밑창까지 감으로 넘치게 표현했으니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테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일을 취소하시든지 하실 것이고, 나에게는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의 삶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지금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알면서도 피곤하니까 안해도 잘 봐주실 꺼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꼭 말로 표현해야되나 안해도 들어주실 꺼야, 꼭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는데도 원래 내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말은 안하지만 마음은 굴뚝같다는 것은 아실 꺼야 그것으로 전도한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해 주시겠지

곧,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은 눈감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요나였고 나이다.

세상에 버림받음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버려졌을 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신처 속에 있었다.) 하나님을 찾은 요나 하다 하다 안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인 나의 신앙 태도, 잘되는 것은 항상 내 탓, 그래서 일이 잘될 땐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일이 잘 안 되야 하나님을 찾는다.

곧, 찾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가서야만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라도 찾게 만드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것이 요나였고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원을 전파했지만 멸망하기를) 바란 요나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 안되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누구는 안돼 하는 나. 곧, 회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의 감정을 간직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요나였고 나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박넝쿨 때문에 좋아하다가 벌레로 인해 시드니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청했다.

별것도 아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되거나 내가 봐서 자격이 미달인 사람,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남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

곧, 나에게는 복과 좋은 길만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 요나였고 나이다.

다른 65권의 성경책들과는 달리 요나서는 특이한 모습을 갖는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듣지 않는 선지자,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심히 싫어하고 노여워한 선지자, 단지 덥다는 이유로 죽여 달라고 간구하는 선지자, 우리는 상식선에서도 벗어난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요나와 같이 취급할 때가 많고 쉽게 "이러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그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내게 다정한 견책을 하신다. "네가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읍하고 감추고만 싶은 자신의 부끄럽고 죄스런 자기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아마 요나는 자기와 같이 살던 시대는 물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실수를 하면서도 이러한 실수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을)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한 선지자"라고 영원히 불릴 것을 알면서도 철저한 자각과 회개와 견책의 심정으로 모두들 자기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의 경박하고 죄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썼을 것이다.

여기서 나와 요나는 다른 길을 달린다. 나는 그대로 부족했던 요나의 모습들을 계속 간직하고 걷고 있지만 요나는 돌아서서 우뚝 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등대가 되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 때문에 "요나"에게 더욱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요나"를 좋아한다고 막힘 없이 또렷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나는 "요나"를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나"거든요! (요나 = 나요) *

□ 신 학 단 상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한 추상(追想)

조 성 운 학우 (M. Div.과정)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두통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들 외에 고린도 교 회에 최소한 두 통의 편지를 더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과 행적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전에 썼다고 보여지는 소위 '눈물로 쓴 편지'를 상상하며 써 본 글이다.>

이 시간 당신이 '눈물로 쓴 편지'와 함께 가셨던 그 길을 추상해 봅니다. 어렵고 긴 여정 가운데 도착한 고린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겠지요. 온갖 우상과 저질 문화,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무질서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만한 암담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사랑으로 심은 복음은 기대 이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당신의 개인적인 애착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곳을 떠난 뒤에 들려온 소식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첫사랑을 잊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도 보내보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였지만, 그때뿐, 그들은 당신이 떠나면 곧 돌아서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뒤 들려 온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대적자들이 활개를 치며 당신의 행적을 매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거의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인간적인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당신은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완성된 편지를 당신은 디도의 손에 쥐어 보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디도에게 호통을 쳐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보내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당신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후회까지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너무 과격하게 쓴 것 같은데...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우들이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면 어쩌나... 불안감에 당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수많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디도의 귀환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당신은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옷 한 벌 걸치고 당신은 노구를 이끌고 직접 행차하셨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목숨걸고 전한 복음인데.., 온갖 역량을 다 바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듬뿍 심은 곳이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사그러들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애정과 함께 미안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경솔함에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한가지 소망은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우들이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디도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상사만 없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먼 길이었습니다. 밤은 왜 이리도 빨리 찾아오는 것인가? 딱딱한 돌베게와 지중해의 찬 밤바람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31페이지로 계속〉

□ 추 모 사

영원한 스승님 고(故) 조갑수 목사님께!

김 인 수 학우 (M. Div.과정)

목사님!

목사님께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드리면서 한 학기 교회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더욱 건강하셔서 후배들 교육을 부탁드렸는데 두 번째 드리는 이 글은 왜 이렇게 떨리고 마음을 가누기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신입생 환영 예배때 설교해 주신 멀리서 보는 일반적인 목사님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97년도 가을학기 교회사 시간을 통해 뜻있는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으로 허락하셨음을 지금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교회사라는 학문은 책을 통해 얼마든지 독학할 수 있지만, 온전치 못하신 육신으로 시간 시간마다 혼신을 다 하셔서 제자들을 위해 목사님의 걸어온 길 그리고 vision등으로 가르치심을 주셨기에 우리 학우들은 평생동안 명심하며 십자가의 도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ROTC 복무를 다 마치시고 그 많은 직장을 마다하고 신학의 길로 또 그 대형교회 부 목사직을 마다하고 미국 유학의 길로 10여 년간의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미국에서 상봉한지 얼마 안되어 러시아 선교사로 또 가족과의 이별,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목사님을 존경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족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결단을 말입니다. 아마 사도바울도 가정이 주님사업에 걸림돌이 될듯하여 미혼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어 복음성가 지도는 잊을 수 없으며, 수도원을 강의하실 때, 현재 이 시대의 수도원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 vision을 염원하셨던 목사님은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수업시간이 끝난 어느 날 저희들과 강의실에서 같이 촬영하시며 교회사 Syllabus 맨 앞 장에 그 사진을 붙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 기억하세요?

파킹장에서 강의실까지 같이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 말입니다. 학우중에서 저를 제일 연장자로 아시고 만학을 격려하신 일, 그때 제가 "목사님 동기 중에서 사성장군이 나올 때가 되었겠지요?" 하고 질문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동문이였다는 것을 그때는 못 밝혔는데 이제는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곳에 계시니 인간적인 섭섭함은 이제 접어두기로 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용서를 빌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Report는 잘했는데 그 진위형시험출제 말입니다. 대학원시험에 초등학교에서나 있는 진위형 시험출제를 했다고 시험이 끝나고는 저는 불평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놀라셨지요? 그 결과 제가 10% 점수를 받은 일을...

저 역시 20여년의 학교생활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목사님이 저를 정확히 보고 평가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대학 나와서 저와 저의 가정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나의 출세를 위해 직장에서의 경쟁 속에 지냈으니 동세대를 목사님과 같이 살면서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0%도

과한 점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임동선 총장님이 주신 신앙간증집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을 읽으면서 '야! 이 도둑놈아' 대목에서 찔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수 받고 축도하기 전까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지 않고 목회 하면 도둑놈" 이라는 구절에서 역시 10% 점수를 또 확인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윤성환 학생회장을 통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빠진 그 때,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가르치신 교회사 성적표가 집에 도착했으니 참으로 실감이 안 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순종,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심에 흡족해 하시면서 상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이별할 수밖에 없나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저희들도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내도록 힘써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일 입관예배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1998년 5월 17일
제자 김인수 드림

P.S. 목사님의 사진이 있기에, 만나고 싶은 아무 때나 뵙게 될 수 있게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에서 계속〉

배픔과 피로함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위로였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하였지만 디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금새라도 쓰러질 듯한 당신의 모습에 그곳의 교우들은 당신을 만류했겠지요. 더 이상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나 이들의 만류가 당신의 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디도에 대한 당신의 애정은 당신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디도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당신은 뛰쳐나가 그를 마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몸 성한 귀환으로 이제껏 당신을 괴롭혔던 불안과 초조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더욱 디도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울 사도님, 저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도님의 편지를 보고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저들은 이제 다시는 사도님을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님을 빨리 다시 찾아 뵙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총으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와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즉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고마운, 너무나도 감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는 아쉽게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보내고 보여진 당신의 인간적 애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갖습니다. 비록 그 편지는 사라졌지만, 당신의 사랑과 열정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